

팔자(八字)의 비밀

박종권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前 언론중재위원

새해가 되면 점집 문턱이 반질반질 났는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겠다. 어제가 오늘의 바탕이고, 오늘은 내일의 재료 아니겠나. 그래도 여기에 희망이란 조미료를 뿌리는 것이다. 용하다는 점쟁이는 아마도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짠 국물에 맹물을 적절히 넣을 줄 아는 심리전문가 아닐까.

한 유명한 점쟁이 이야기이다. 미래 예측에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 그의 비법은 이랬다. 연말 연초에 찾아오는 중년의 남성은 대체로 관운(官運)을 본다. 직장에서 승진 여부가 궁금한 거다. 이럴 때 손님의 기색을 살피고는 단언한다. “걱정 마시라. 새해는 관운이 트여 무조건 승진한다.” 손님은 두둑한 복채를 내놓는다. 이때 점쟁이는 비서에게 명한다. “날짜와 이름 뒤에 ‘멈출 지(止)’를 적어라.”

요행히 승진하면 용한 점쟁이 명성은 이어진다. 그런데 승진에서 탈락했다. 손님이 찾아와 항의하면 비서에게 장부를 가져오라고 한다. 장부에는 점을 본 날짜와 이름 뒤에 ‘멈출 지’가 적혀 있다. “사실 당신은 승진하지 못하는데, 행여 불상사라도 일어날까 반대로 점괘를 낸 거다.” 점쟁이가 명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짐작했겠지만, 수험생 부모에게는 당락(當落)을 적절히 짚어준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합격

한 경우 걱정할 것 없다. 장부의 날짜와 이름 뒤에는 딱하니 ‘마땅 당(當)’이나 ‘합할 합(合)’자가 쓰여 있다. 합은 합격이다.

호사가들은 재벌과 법조인의 공통점은 공통으로 점(占)에 기대는 점이라고 너스레를 떠다. 한 건설회사 회장 이야기이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방패막이용으로 전관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내심 후배 검사에게 “잘 봐 달라” 로비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헌데 정작 이 변호사는 자신이 현직일 때 종종 찾던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검찰에 언제 출두하는 것이 좋겠느냐” 날짜를 점지해 달라고 하더라.

인간사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어찌 알겠나. 알 수 없는 만큼 궁금한 것도 오늘 내일의 운세이겠다. 한때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가 실렸는데, 같은 날 같은 띠임에도 풀이가 미묘하게 다르기도 했다. 그래도 “어쩐지 맞는 것 같더라”는 독자 반응이 나온다. 정말로 60갑자(갑자)에 따라 운세가 대체로 비슷한 것일까. 예컨대 58년 개띠의 오늘 운세는 모두가 비슷하다는 것인가.

여기에 힌트가 있다. 1948년 미국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Bertram Forer)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그는 “학생 각각의 성격을 정리했다. 얼마나 수궁할 수 있는지 0부터 5까지 점수를 매기라”고 했다. 집계 결과 평균 점수는 4.26이었다. 5점은 ‘훌륭하다(Excellent)’, 4점은 ‘좋다(Good)’이니 그야말로 족집게 수준인 셈이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각각의 학생들에게 주어진 성격 검사 결과지는 사실 똑같은 내용이었다. 포러가 ‘별자리 점성술’ 자료를 짜깁기한 것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오늘의 운세’나 ‘올해의 토정비결’을 적절하게 버무렸다. 다음이 대략적인 바로 그 내용이다. 자신의 성격을 진단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기를 바란다. 스스로 당신 자신에게는 비판적인 경향이 있으며, 아직 사용되지 못한 상당한 능력과 재주가 있다. 다소 성격적 문제가 있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겉보기에는 절제와 자제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걱정도 많고 불안감도 있다. 가끔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옳은 일을 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며, 구속과 규제를 싫어한다. 당신은 너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외향적이고 친절하며 사교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향적이고 경계하며 내성적이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꿈을 꾸기도 한다. 동시에 안정적인 삶을 바라기도 한다.”

어떠한가. 족집게처럼 맞는 것 같은가? 실제로 독자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가? 0부터 5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

포러의 실험은 계속됐고, 나중에 평균 점수는 4.2에 수렴됐다. 이를 포러 효과(Forer's Effect)라고 한다. 주어진 문장이 막연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안정적이게 된다. 이럴 수도 있

고 저릴 수도 있는 모호한 문장에 대해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가끔’이라거나 ‘때로는’이란 조건적 유보적 표현에 “그래, 나도 그렇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죽집게 도사’도 조건적이면서 유보적인 표현으로 상대의 긍정을 유도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예컨대, “고민이 많아 보여요. 뭔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소화도 잘 안되죠?”라고 묻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사실 고민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집에 오겠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 “어쩔 그렇게 잘 알아요? 맞아요. 요즘 장사가 잘 안돼 (혹은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요. 속도 늘 더부룩하고요.”라고 대답한다면, 이미 낚인 것이다.

사주팔자(四柱八字)는 이런 점복(占卜)이나 운세와는 다를까. 사주는 10간(干) 12지(支)의 ‘60갑자(甲子)’가 기본이다. 줄여서 ‘육갑(六甲)’이다. 예컨대 2023년 2월 4일의 경우 계묘(癸卯)년, 갑인(甲寅)월, 계사(癸巳)일이다. 여기에 태어난 시의 간지(干支)를 붙이면 바로 팔자(八字)가 되는 거다.

2월 4일을 예로 든 이유가 있다. 2023년은 토끼 해인데, 띠가 바뀌는 날은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음력으로 설날인 1월 22일도 아니다. 바로 입춘(立春)인 2월 4일부터 바뀐다. 2023년 2월 3일에 태어난 아이는 토끼띠가 아니라 호랑이띠이다.

여하튼 사주팔자의 경우의 수를 보자. 60갑자이므로 각기 다른 간지의 해가 60년이다. 환갑(還甲)이 그래서 만 60세이다. 여기에 12월이 있다. 날짜는 60갑자를 따라 순환한다. 하루는 자(子)시부터 해(亥)시까지 12시이다.

그러면 60(년)*12(월)*60(일)*12(시)=51만 8,400이다. 지구에 80억 인구가 산다고 보면 사주팔자의 가짓수가 51만 8,400개이므로, 확률적으로 똑같은 팔자를 가진 사람이 1만 5,432명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로 한정해도 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이 96명쯤이다.

그런데 사주팔자를 잘 본다는 사람이라도 51만 8,400가지의 경우를 모두 알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온 것이 오행(五行)에 따른 분류법이다. 금수목화토의 오행(五行)을 연월일시에 붙여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마다 풀이가 미묘하게 다른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사주팔자도 똑같지 않겠나. 사주팔자가 같다면, 경우의 수도 51만 8,400분의 1인데 인생역정도 최소한 엇비슷하지 않겠나. 인생사 팔자가 좌우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 신문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한 일이 있다. 고 이영 선생이 ‘즈문둥이’라고 명명한 2000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기묘(己卯)년병자(丙子)월무오(戊午)일자(子)시이다. 당시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떠들썩하게 보도까지 됐으니



기초자료도 있다. 당국의 협조도 받았다. 즈문둥이의 사주팔자가 같으니 10년이 지나 과연 사는 것도 같을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결론은 사주팔자는 같아도 인생 행로의 양상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물론 더 세월이 더 흘러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어린 상태에서도 생활상과 질병, 사고, 교육여건들이 다 제각각 달랐다. 벌써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

사실 옛날 사람들도 사주팔자를 확실히 믿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누구는 팔자가 사나워서 인생이 그렇다고들 말한다. 잘 나가는 사람은 “팔자가 쫓 났다”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팔자가 꼬였다”고 한다. 여기서 ‘꼬였다’는 상황은 사주팔자가 보여준 ‘인생결정론’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나온 말이 “여자 팔자는 뒤옹박 팔자다”는 말이겠다. 요즘에는 남자 팔자로 고쳐야 트렌드에 맞겠다. 사주팔자는 분명히 좋은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대 “여자인 남자이든 사주팔자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달렸다”고 한다. 원래의 팔자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겠는데, 결국 사주팔자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사주팔자 풀이의 핵심이 ‘위로’라고 한다. 세상에 걱정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처님도 인생이 고헤(苦海)라고 했다.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다. 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이 집착을 없애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라고 했다. 바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四聖諦)이다.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런 고통이 한없이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대운(大運)이 들어오고 나간다. 지금은 비록 길운(吉運)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대운이 온다고 하니 꼭 참고 살아보자 다짐한다. 설령 대운이 끝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들어온 운을 잘 갈무리하면서 살면 될 일이다. 좋은 일이 항상 좋지 않고, 나쁜 일이 항상 나쁘지 않은 법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 실패했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은 초승달을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아 보름달이 되지 않겠나.

결국 모든 게 팔자소관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복날을 몰랐을 때이다. 정월대보름에는 쫄쫄 굶기기도 한다. 바로 ‘상원(上元)의 개’ 신세이다. 좋은 팔자도 ‘팔자대로 못 사는’ 법이고, 나쁜 팔자도 ‘팔자를 제대로 고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팔자를 한번 고쳐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확 바꾸는 거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이다. 애주가라면 술을 끊기는 어렵다. 담배는 ‘스스로의 문제’이지만, 술을 ‘더불어의 문제’가 아닌가.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

다. 칼로 물을 벨 수 없듯이 술도 자를 수 없는 것일까. 아니다. 술은 술로 자른다. 바로 입술이다. 적절히 잘라 마시면 황야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샘이 솟는다.

스스로 결단의 문제인 담배는 다르다. 담배를 끊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사회생활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애연가가 아니라 ‘담배의 노예’라면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한번 끊어볼 만하다. 차제에 담배 끊는 방법을 하나 소개한다.

2020년 2월 103세로 타계한 미국의 영화배우 커크 더글라스가 생전에 뉴욕타임스에 쓴 글이다. 움푹 팬 턱이 상징인 그는 영화 스파르타쿠스의 주인공으로, OK목장의 결투에서 콜록 거리는 닥 할리데이로 유명하다. 25살 차이를 딛고 캐서린 제타 존스와의 결혼에 골인한 미남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칼럼 제목은 “나의 첫 담배와 마지막”. 커크의 아버지는 1910년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농부 출신인데, 눈만 뜨면 담배를 찾아 입에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진단을 받고 담배를 끊기로 했다. 방법은 단순했다. 담배 한 개비를 윗옷 가슴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면 담배를 꺼내 노려보면서 외친다. “누가 강하냐? 너냐, 나냐? 나다!(Who’s stronger? You, me? I stronger!)”고 하며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늦었다. 결국 72세에 세상을 떠났다.

커크는 할리우드에서 성공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손 처리가 어려운데, 이 어색한 손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려 담배를 배웠다. 담배를 톡톡 치거나, 손가락 사이에 끼우곤 하면 연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담배를 배웠는데, TV에 출연하면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담배를 끊기로 했다. 방법은 그 아버지를 따랐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회상하며 “누가 강하냐? 너냐, 나냐?”를 떠올렸다. 그는 담뱃갑에서 한 개비를 꺼내 들고 바라보며 “나다!(I stronger!)”하며 상의 주머니에 넣고는 평생 피우지 않았다고 썼다. 그가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비결이겠다.

금주금주(今週禁酒), 금년금연(今年禁煙)이다. 지금의 인생이 뭔가 부족하다면, 그런데 ‘담배의 노예’라면 이 기회에 팔자를 한번 고쳐 보면 어떠한가. 담배보다 팔자보다 당신이 강하다. ㉠